마음의 세상접촉은 접촉사고

(호세아 4:1~19)

1.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3.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마음의 세상접촉은 접촉사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마음의 세상접촉은 접촉사고'
호세아서의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아홉 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설교가 5장 4절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주제의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6절의 말씀입니다.

접촉이라는 말의 순우리말은 닿음입니다. 맞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서로 맞붙어서 빈틈이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어떤 목표점에 이르는 경우에도 닿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접촉이라는 한자어도 이을 접(接) 닿을 촉(觸)으로써 이러한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의미를 중심에 두고 본문을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닿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집시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양세은 작가가 네이버에 그림과 연관된 에세이를 발표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2018년 11월에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녀 간의 연애와 사랑을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은 수없이 많습니다만 이 작품의 독특한 점은 사랑을 촉감이라는 소재를 통해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 100여점의 그림과 함께 간결하게 써내려간 접촉을 통한 사랑을 주제로 한 에세이들이 들어있습니다. 저자 스스로 책에 대한 의도를 "살과 살이 맞닿는다. 단순히 물리적인 접촉 스침에 불과할지라도 그 찰나의 순간 우리는 심장이 단전까지 떨어지기도, 구름 위로 두

둥실 떠다니기도, 피가 역류하기도, 미온수를 유영하기도 한다. 이렇듯 만감이 교차되는 신비로운 찰나를 그림에 담아내려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집필 당시에 저자는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신혼부부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접촉을 통해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신랑이 신부를 꼭 껴안고 곤이 잠든 모습, 소파에 신랑이 비스듬히 누어있는데 신부가 그런 남편에게 기대어 안겨 있는 모습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매일 이렇게 너에게 닿고 싶은 마음, 우리 자석처럼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등에 맞닿은 너의 부드러운 온기에 내일의 걱정이 모두 녹아 사라진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다른 문장을 살펴보면 “다른 곳을 보고 있어도 느껴지던 그의 시선이 마치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아서 고개를 돌려서 바라봤다. 까만 머리카락 사이로 반짝이는 섬광이 나를 향해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부가 남편의 시선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남편의 머리카락 사이로 시선이 마주칩니다. 시선의 접촉이 느껴지는 남편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접촉의 순간을 만감이 교차되는 신비로운 찰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듯 접촉에 대한 반응은 모든 대상에게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한밤중에 가로등도 없는 길을 혼자 걷는데 갑자기 남자의 손이 어깨를 잡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때의 접촉은 결코 사랑하는 사람과의 접촉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온 몸이 냉동실에 들어간 것같이 얼어붙고 두려움과 극도의 공포가 전신을 휩싸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 사람과 몸이 닿기도 하고 옷이 스치기도 합니다. 분명히 접촉은 일어나고 있지만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이처럼 신체의 접촉을 통해 일어나는 반응들은 실은 마음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음이 대상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접촉에서 생겨나는 반응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의 접촉은 신체의 접촉보다 언제나 우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복음적 의미에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과 세상의 접촉은 관계가 아닌 접촉사고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과의 접촉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접촉만이 진정한 만남이고 그 외의 대상들과의 접촉은 사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의 인과관계를 잘 살펴보면 진실과 인애가 없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메트’는 객관적 기준을 따라서 항시 동일하게 유지되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기분이나 상황이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 의미를 강조하자면 신실하다는 말로 번역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진실함과 신실함은 하나님의 속성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공의로 행하십니다. 사람들도 이러한 진실함과 신실함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서 결혼서약 등에서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인애는 히브리어 '헤세드'로써 사랑과 긍휼을 의미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러한 진실과 인애가 없어진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식이란 히브리어 '다아트'로써 '야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야다'는 단순한 지식으로써의 앎이 아닌 남녀가 동침하여 서로에 대해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인격적 앎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느낌으로 아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닿음'이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작가는 신혼생활을 하며 깨달은 사랑을 접촉이라는 소재로 표현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신혼부부가 된 상태와 같이 마음의 접촉을 이루는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를 안을 때에 배우자 외에는 생각할 대상이 없습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대상에 대해 마음의 접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야다'로써의 지식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의미를 전제로 놓고 보면 신앙적 의미에서의 진실과 인애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집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접촉하는 동안 이 세상에 대해 관계할 때에 진실함은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과 마음이 접촉하는 동안 사람을 향해 나타날 수 있는 마음이 인애 즉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접촉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삶에서 진정한 의미의 진실도 인애도 없어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2절에서 나타난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접촉을 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단순히 사업이 안 되기 때문은 아닙니다. 마음이 사업이라는 대상과 접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사업이 힘들어지니 사업과 닿아있는 마음도 힘듦을 느낍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본래 사람의 마음이 접촉해야만 하는 대상은 하나님뿐이시기에 사업과의 닿음은 관계가 아닌 접촉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을 접촉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늘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있고 평안이 깨진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것은 부모로써의 당연한 도리가 아닙니다. 마음이 자녀에 대해서 바람직한 관계와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접촉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앞서 진실 즉 '에메트'는 객관적 기준을 따라서 항시 동일하게 유지되는 성향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에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지 못한 채 상황에 따라 변덕이 죽 끓듯 한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녀를 향해서 인애 즉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마음을 채우기 위한 제물로 삼는다면 마찬가지로 자녀와의 관계는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접촉사고를 사랑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닦달하고 책망합니다. 실제로는 자녀의 성공과 출세가 마음을 채워주는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써 자녀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위한 제물로 삼는 것입니다.
또 부부가 서로에게 마음이 접촉하는 것도 사고입니다. 마음의 접촉은 바른 부부관계를 망치는 사고이고 충돌입니다. 이러한 접촉사고는 비단 부부나 가족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나 직장이나 공부나 업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대상들과 마음이 닿는다면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마음을 닿게 함으로써 바른 관계가 되거나 일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게 지음을 받았기에 느낌을 통해 알게 되는 '야다'로써의 지식으로 항상 채우려고 합니다. 문제는 대상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관계할지에 대해 선택해야만 합니다. 무엇에 대해 마음을 접촉시키며 야다의 지식을 얻으며 살겠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에 모든 재산을 일시에 잃게 되었습니다. 이 느낌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앎입니다. 또 욥은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자녀를 앞세운 부모의 심정을 안타까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심정이 실제로 어떨지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동일하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갖는 느낌과 앎도 이렇게 체험적이어야만 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평생 선민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접촉시키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백성이 제사장에게 올 때에 그 마음이 세상에 접촉해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울고 불며 왔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수입이 없어 가족이 다 죽게 생겼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상황에 마음이 접촉하고 그로 인해 생겨난 느낌을 잘 알게 된 상태입니다. 돈이 없는 상황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앞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심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제사장은 돈이 없는 상황에 마음이 붙어서 그 느낌을 잘 알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접촉을 가르쳐줍니다. 돈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사실이라면 마음을 어디에 접촉시켜야 할지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대해 제사장의 역할은커녕 선민들이 오히려 마음을 세상에 접촉시킨 채 살아가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선민들과 마음의 접촉을 기다리고 계심을 깨우쳐줘야만 했습니다. 세상과 접촉한 마음이 더러워진 상태임을 깨닫게 하고 번제단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과의 접촉을 회복시켜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번제는 다 태우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제사장의 몫으로 제물을 남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고무시켰습니다.
마치 장의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어떤 장의사들도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북 왕국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백성들이 악행을 저지르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악행은 세상과의 접촉면을 강화시키고 넓혀가는 것입니다. 사업이 안 돼서 찾아온 사람이 있다면 사업에 대해 마음을 더 단단히 접촉시켜주고자 합니다. 앞으로 잘될 수 있다며 제물을 드릴 것을 종용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든 상황이든 마음이 닿으면 접촉사고가 되고 충돌이 됩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 선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접촉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자 진실도 없어지고 인애도 없어지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피가 피를 부르는 악행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부는 결코 접촉사고와 충돌사고가 일어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의 마음이 남편에게 접촉해서는 안 되고,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보았던 '닿음'이라는 책에서 나타난 저자의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혼기간 동안에나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접촉사고와 충돌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천하의 원수로 여겨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서로에게 마음의 접촉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원했지만 얻을 수 없었기에 못 살겠다는 '야다'의 앎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많은 세상의 일들에는 마음을 접촉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마음을 접촉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3절에서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라고 말씀하신대로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접촉하여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면 육체가 접촉하고 관계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때에 나타나는 일이 진실과 인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에는 “저 사람 진실하다. 사랑과 긍휼이 많다.”고 평가하겠지만 실은 마음이 접촉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뿐입니다. 세상과의 접촉면을 십자가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했던 바가 이와 같습니다. 육체 입은 인격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담음으로써 세상과의 접촉면은 끊어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접촉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듯이 하늘을 향해 열심히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상과의 접촉을 끊기를 지속한다면 하나님과의 접촉 또한 저절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접촉을 등졌기에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을 유지함으로써 느낌으로 알게 되는 지식인 다아트가 없다면 우리 또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 생활화를 지속하는 것뿐입니다. 배우자를 보면서도 마음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접촉이 유지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배우자를 대하면 진실과 인애를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의 인생을 걸기 위해 세상과의 닿음이 접촉사고와 충돌사고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접촉을 위해 십자가를 생활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몸에 오장육부를 담고 다니듯이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담고 다님으로 세상과의 접촉을 완전히 끊고 오직 하나님과 접촉함으로 그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